

고 있으며, 처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만들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배포하고 있다.

- *더운 날 차 안의 온도는 최고 49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 *만약 차 안에 있는 자신의 동물이 숨을 헐떡거리면 뜨거운 날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차 안에 동물을 두는 것은 매우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그늘에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태양의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차창을 열어놓고 물을 주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만약 동물이 온도로 인해 힘들어한다면 찬물로 샤워를 시켜주고, 의식이 없거나 심각한 상태라면 즉시 수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 *이런 상태에 동물을 방치하는 것은 경찰에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 2006년 7월 23일

국내 소식



❶ 얼음! 너무 시원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된 30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의 북극곰이 과일이 든 얼음을 꺼안은 채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 2006년 7월 17일 뉴시스 / 2006년 7월 30일



❷ KTF, 애견포털 '멍멍친구' 서비스

애견관리 휴대폰으로

KTF(대표 : 조영주)가 8월 8일 애완견에 사람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인터넷 핫 넘버 서비스를 통해 애완견의 분실방지 및 생활관리를 할 수 있는 애견포털 서비스 '멍멍친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고유의 애견번호가 새겨진 '멍멍친구 목걸이'가 무료로 배송된다. 이 목걸이를 찬 애완견이 분실 됐을 경우, 습득자가 목걸이에 새겨진 애견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한 후 무선인터넷 매직엔 키를 누르면 분실자의 개인 페이지로 접속돼 애완견을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개인정보 노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온·오프라인의 애견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한 애견맞춤 포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디지털타임스 / 2006년 8월 9일

🌐 “참웰빙 위해 개고기 먹지 맙시다”

“진정한 웰빙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말복(末伏)을 사흘 앞둔 8월 6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6개 동물보호단체 회원 50여명이 개 식용 반대와 채식문화 확산을 외치는 캠페인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반려동물인 개를 잡아먹는 보신행위는 청산돼야 할 ‘악습’이다. 친구처럼 길들여 온 동물을 잡아먹는 한 생명과 환경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회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들은 콩으로 보신탕 맛을 낸 ‘콩고기탕’ 등 채식요리와 과일화채 등 다채로운 ‘복날 음식’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개 식용 반대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콩고기탕을 맛본 대학생 남기범(21)씨는 “어릴 때부터 개고기를 먹어왔는데 콩고기탕이 오히려 더 담백하고 맛있다. 몸에도 더 좋을 것 같다”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행사를 주최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잔인한 보신 습속은 인간에게 정서적 악영향과 치명적 질병을 가져온다”며 “채식 요리야말로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웰빙 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복(7월 20일)에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이 개고기 합법화를 유도한다며 개고기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고 중복(7월 30일)에는 식용견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개 우리에게 사람이 갇힌 채 실려가는 모습 등을 연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2006년 8월 6일

🌐 “야생동물 생태통로 대부분 엉터리”

야생동물의 이동과 확산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에코브릿지(Eco Bridge 생태통로) 상당수가 잘못 설치돼 야생동물이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노선 선정으로 로드킬(Road Kill)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8일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이 내놓은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한 생태통로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48곳(2003년 기준)에 설치·운영중인 생태통로중 무작위로 육교형 3곳과 터널형 3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곳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다.

강원 양양 서면 구룡령 국도 56호의 경우 생태통로가 폭 30m, 길이 22m로 구조물위에 약 4m 정도를 성토해 만들어졌지만 구룡령 정상 휴게소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5m 정도 떨어져 있어 이용객과 차량접근이 많아 위치선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도 3호선의 경북 문경 마성면에는 있는 생태통로는 상단부에 소나무 등이 심어져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폭이 3m 정도에 불과한데다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과 전조등 불빛 차단시설이 없어 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발자국 등 이용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중앙고속도로 강원도 횡성 구간의 터널형 생태통로는 박스형 구조물 출입구에 은폐시설이 없고 이용을 유도할만한 보조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 청주시 우암산 생태통로는 녹화, 경관 측면만을 고려, 주변

나무들과 다른 나무를 심었고 주변에 등산객 벤치까지 마련돼 제기능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생태통로만이 구조물 상단부에 옹덩이, 돌무더기를 만들고 차단벽도 잘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측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생태계와 유사한 식물 식재 ▲자동차, 건물 등으로 인한 불빛, 소음, 진동 차단 ▲추락방지용 차단시설 설치 ▲돌무더기 등 보조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지침, 기준 제정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 2006년 7월 28일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선발 재개

과기부, 항우연, 9월2일 3.5km 달리기 평가

10월 중순 후보 300명 압축, 내년 초 최종 2명 선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선발 작업이 9월 2일 3.5km 달리를 시작으로 본격도에 오른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3.5km 달리기 기초체력평가를 9월2일 서울 과 부산, 대전, 광주, 강릉, 제주 등 전국 6곳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8월 8일 밝혔다.

기초체력평가는 우주인 후보 공모에서 지원자 3만6천206명 중에서 기본서류 검토를 통과한 1만58명(남자 8천691명, 여자 1천4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원자들은 3.5km 달리기에서 남자는 23분, 여자는 28분 이내에 완주해야 한다.

과기부와 항우연은 이어 같은달 17일 기초체력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어(TEPS), 판단력, 수리력, 과학상식 등 적성검사 형태의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이어 기초체력 평가와 필기시험,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보 500명을 선발한 뒤 다시 기본 신체검사, 서류대조 등으로 10월 중순 후보를 300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1차로 선발된 300명 중에서 2차로 심층 체력평가, 정신, 심리검사, 임무수행 능력 등에 관한 심층 면접을 통해 10월 말 30명으로 압축한 뒤 3차로 정밀신체 검사, 우주적성검사(무중력 적응성 등), 상황대처능력을 평가해 올 연말께 10명을 뽑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말부터 2007년 초까지 우주적성검사(고립실, 훈련기 탑승시험), 사회적 적합성, 의학검사를 실시, 우주인 후보 2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 2명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어학, 이론교육, 국제우주정거장 및 소유즈 우주선 모의훈련, 의학 훈련, 체력훈련, 생존훈련, 무중력 적응훈련 등의 우주적응 훈련과 함께 우주과학 실험 수행을 위한 임무훈련을 받는다.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은 2008년 4월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에 탑승,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각종 과학실험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 2006년 8월 8일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제 등록

횡성한우가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명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횡성군과 횡성축협은 횡성한우가 8월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열린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최종 심의를 통과해 한 달간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 중 정식 인증서를 교부받게 됐다고 8월 7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해당 상품의 명성과 품질 등의 특성이 지역의 생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명품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등록명칭과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품에 표시된다.

횡성한우는 이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 인증마크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돼 브랜드 파워는 물론 한우특화 산업 육성과 인지도 상승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횡성한우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품임을 대내외에 입증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횡성한우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6년 8월 7일

